

전남도, 세계수영 연계 관광 전략 급하다

광주 대회 1년 앞... 중국·일본 등 국내외 50만명 방문 예상
다양한 관광 마케팅 나서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 지적도

대한민국 마지막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전남의 경우 광주와 달리 도시 중심의 관광상품이 아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관광'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 마련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회 개최를 1년여 앞두고도 전남도는 아직까지 세계수영대회를 겨냥한 관광 마케팅 전략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광주·전남 상생협의회에서 양 사·도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협력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낙연 전 지사가 총리로 영전한 뒤 도시사 권한 대행체제가 1년 6개월 정도 이어지면서 사실상 관심 밖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광주·전남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성공 개최를 이뤄냈던 지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당시 전남지역에 경기장과 훈련장 등이 많았던 만큼 유기적인 협력과 대회 홍보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세계수영대회도 6개 대회 종목 중 오픈 워터 경기장이 여수엑스포 공원(TBD)으로 정해진 만큼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50여만 명의 국내외 관중과 관

객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영 종목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아마추어 선수들과 가족 등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일본 관광객들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회 기간 중 이들이 광주·전남에서 체류하며 관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마련해 조기에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무안공항을 통한 전세기 운영 상품, KTX-SRT를 이용한 광주·전남 투어 상품, 광주지역 경기장과 여수 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회 기간 중 광주·전남 패키지 관광상품, 광주수영대회 투어 상품 등을 문의하는 여행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광주와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 정책도 필요하지만, 광주와 전남을 연계하는 새로운 상품 등을 발굴해 지금부터 국내외 여행사와 함께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철저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사·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대회가 다가온 만큼 올해 추가로 전남도 공무원 14명 등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광주·전남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관광 전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 마련 등 관광 마케팅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호우피해 보성읍·회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호우로 큰 피해를 본 보성군 일부 지역이 읍·면·동 단위로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내린 비로 피해를 본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10~13일 보성군 지역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면·동 단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에는 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주며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도 감면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시원~하다 수락폭포" 광주·전남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계속된 18일, 구례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쏟아져 내리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이승욱 강진순수 민선 7기 구상
-강진순단 분양·일자리 창출 올인 ▶11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화순 오건규
-들부처가 가르쳐준 불계공중 경지 ▶18면

아로마라이프쥬 제8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무등·광일리그 32개팀 참가
9월 2일 개막...두달간 열전

광주일보사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 '제8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구 리그로부터 추천받은 32개팀이 참

가하며, 경기력을 기준으로 '무등' '광일' 2개 그룹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올해도 아름다움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제)가 광주일보와 함께 대회를 진행합니다.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의 가을잔치인 이번 대회에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회기간 : 2018년 9월 2일 ~ 11월(매주 토, 일요일)
- 대회장소 : 광주·전남 지역 지정 구장
- 경기방식 : 무등·광일 토너먼트
- 시 상 :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등
- 대회 및 출전팀 정보 : 광주일보 홈페이지
- 문 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광주일보

목포~부산 KTX 건설 급부상

김영록 전남지사·이용섭 광주시장·오거돈 부산시장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연계... 건설 추진 한목소리

목포와 부산을 잇는 고속철도(KTX)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잇따라 KTX 건설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18일 광주·전남 관가와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된 남해안 광역경제협력 사업이 힘을 얻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전국을 U자형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다. 동해안 축과 서해안 축은 이미 개통됐고, 남해안 축만 남았다. 이로 인해 민선 7기 들어 남해안 축의 핵심인 목포-부산 KTX 건설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7일 "영남권 핵심인 부산과 호남권 핵심인 광주·목포를 잇는 KTX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부산 간 철도 소요시간을 2시30분으로 앞당겨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순천-목포 간

고속전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최근 광주전남CEO포럼에서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목포-부산 KTX 건설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이 성사되면 목포와 부산을 1시간 안팎으로 오갈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목포-부산 KTX 건설의 경우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성·시기 등을 놓고 보면 당장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경성 구간은 전철화가 완료되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한산 진행 중이지만 전라구간은 아예 전철화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철화나 복선화가 부산 쪽에 비해 저조한 전남 입장에서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포-부산 KTX 건설 구상이 구체화하면 보성-목포구간의 전철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항대로 603(소문동) | 수안 서비스센터 (062)961-009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항대로 520(수안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루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